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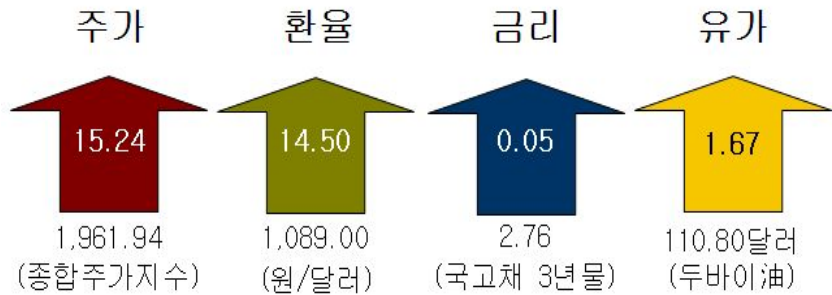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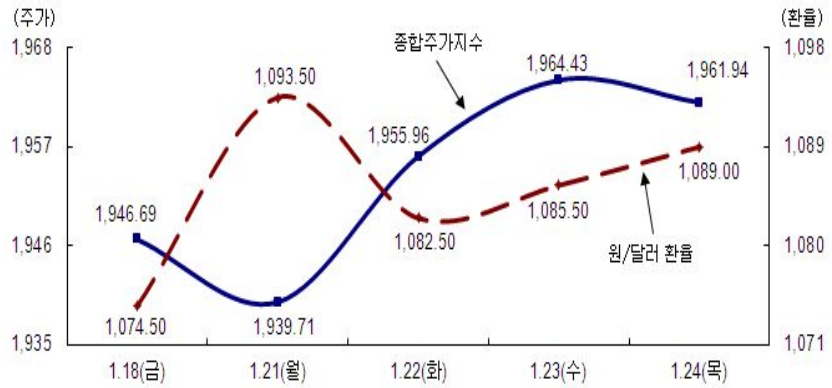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환율, 경상수지, 산업 경쟁력 모두 문제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5~1.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부 형 수석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환율, 경상수지, 산업경쟁력 모두 문제다!

1.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전망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경제 회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하여 일본경제를 성장궤도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아베내각의 일본경제재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3% 성장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로금리 유지와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약 13.1조 엔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는 엔저기반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지연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 엔저효과와 시차 발생, 인위적인 엔저 유도에 의한 대외마찰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여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은 연평균 80년대 후반으로, 기대 수준인 90~95년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성장률도 2%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일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원/엔 환율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감소 및 국내 소비 감소는 물론 한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소비 유출로 경상수지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만약, 2013년에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 폭 만큼 축소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이 발생될 것이며,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약 3억 달러의 관광 지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총 10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국내 경상수지 4325억 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시장 내 주력 수출 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주요 수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분석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IT부문은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3. 시사점

아베노믹스로 인해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모색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또,**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아베노믹스의 등장

○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현상 속에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일본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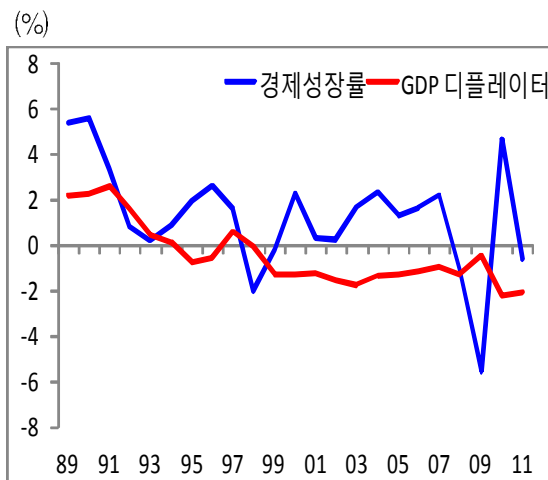
-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

- 일본경제는 지난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으며, 1995년부터는 디플레이션이 지속
- 더욱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4분기에 1.4% 성장한 이후, 2/4분기 0.0%, 3/4분기 -0.9%로 침체 국면에 재진입
- 뿐만 아니라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8개월, 9개월씩 하락세를 보여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

- 아베노믹스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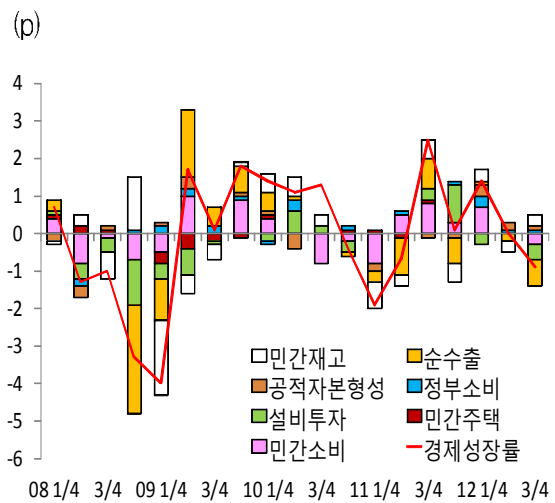
- 지난 2012년 12월 12일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 아베정부가 공식 출범(2012년 12월 26일)
- 아베정부 출범 이후 2013년 1월 23일 현재 주가는 2.5% 상승, 엔/달러 환율은 약 7.9% 상승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고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추이 >



자료 : IMF, 日本 內閣府.

< 일본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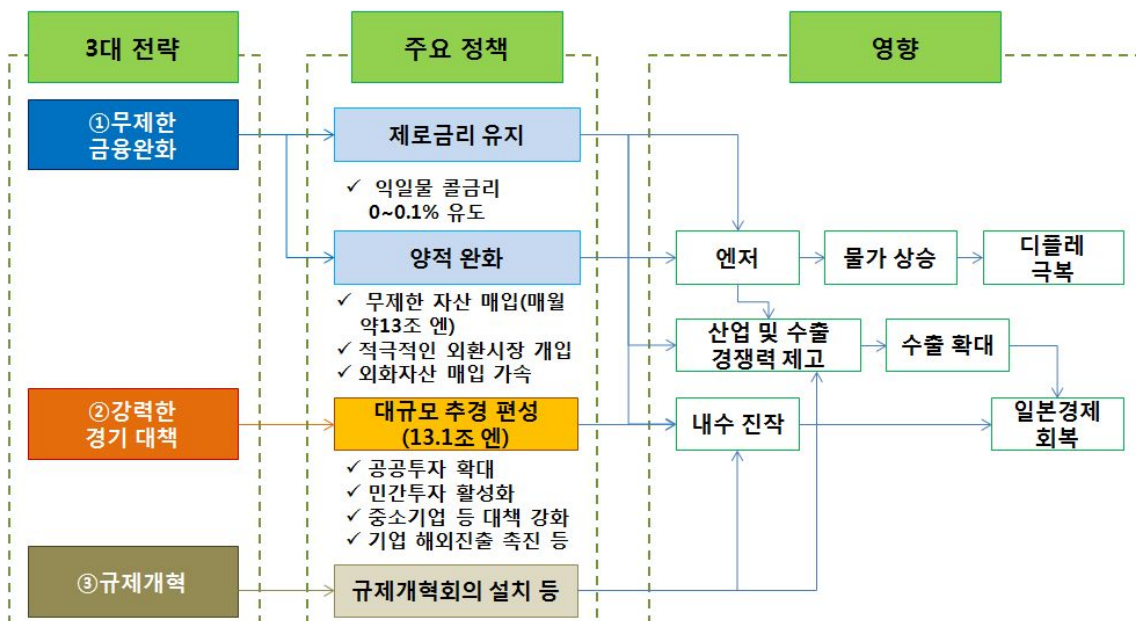
2.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아베노믹스란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 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하여, 일본경제를 성장 궤도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아베내각의 일본경제재생전략임

- 아베노믹스의 목표

- 2% 물가상승률과 명목 3% 이상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본상을 구현
- 이를 위해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축으로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 엔 탈환 프로젝트', 규제개혁을 통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 해외투자 수익 환원을 통해 일본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투자입국' 전략과 '무역입국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 즉, '하이브리드형경제입국' 등 추진

< 아베노믹스의 전략과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무제한 금융완화 추진을 통한 엔저 유도 및 디플레 탈출

- 물가 목표 설정 : 지난 1월 22일 일본은행은 기존의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으로 하되, 우선 1%를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를 2%로 명확히 함¹⁾

1) 이하 日本銀行(2013년1월22일), 「物価安定の目標」と「期限を定めない資産買入れ方式」の導入について' 및 '金融政策運営の枠組みの元での「物価安定の目標」について' 참조.

- 제로 금리 유지 : 일본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0.1% 수준으로 유도 결정
- 무제한 자산 매입 : 일본은행은 매월 2조 엔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포함한 약 13조 엔 규모의 자산매입 추진)
- 강력한 경기대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경기 회복 촉진
 - 긴급경제대책(추경) 추진 : 지난 2013년 1월 11일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실천을 위해 약 13.1조 엔에 달하는 추경안인 제1차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 발표 예정
 - 산업경쟁력 회복 : 제조업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R&D투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 및 수출 확대 전략 추진을 위해 약 1.8조 엔 규모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 제1차 긴급경제대책의 핵심

< 아베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부문별 추경예산 규모 >

구 분	재정 투입 (추경 예산)	총사업비 (민간 포함)
1. 부흥·방재대책	약 3.8조엔	약 5.5조 엔
- 동일본대지진 복구 가속	약 1.6조엔	약 1.7조 엔
- 사전 방재·감재 등	약 2.2조엔	약 3.8조 엔
2.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약 3.1조엔	약 12.3조 엔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력 강화	약 1.8조엔	약 3.2조 엔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농림수산업대책	약 0.9조엔	약 8.5조 엔
- 일본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등	약 0.1조엔	약 0.3조 엔
- 인재육성·고용 대책	약 0.3조엔	약 0.3조 엔
3. 생활의 안심·지역활성화	약 3.1조엔	약 2.1조 엔
- 생활의 안심(의료·육아, 생활공간의 안전 확보·질 향상, 안전보장환경 적응 등)	약 0.8조엔	약 0.9조 엔
- 지역활성화(콤팩트 시티, 농업 체질 강화 등)	약 0.9조엔	약 1.2조 엔
- 지방의 자금조달에 대한 배려와 본 대책의 신속한 실시	약 1.4조엔	
- 공공사업 등의 국고채무 부담행위	약 0.3조엔	약 0.3조 엔
소계	약 10.3조 엔	약 20.2조 엔
기타	연금국고 부담 1/2 실현 등	-
총 추경 규모	약 13.1조 엔	-

자료 : 日本 內閣府(2013년1월11日),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對策.

2)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외환 시장 개입 정책은 물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출자를 통한 ‘해외전개지원출자 Facility(가칭)’ 신설, 유로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채권 구입, 외국환자금특별회계를 활용한 엔저 유도책을 도입 예정.

-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회의'를 신설, 이를 통해 과도한 물가 상승 없는 경기 회복(리플레이션; Reflation), 산업경쟁력 회복과 같은 핵심 전략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실현
- 특히, 규제개혁 에너지·환경, 건강·의료, 금융기관 출자규제 등도 포함

○ (아베노믹스의 기대 효과)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 아베노믹스의 기대 효과

- 추세적 엔저 유도 : 일본정부(내각부)는 엔/달러 환율이 2012년 81.9엔/달러에서 2013년 87.8엔/달러로 7.2% 상승 기대³⁾
- 산업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강력한 재정정책에 의한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엔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제고 전망⁴⁾
- 물가 상승 : 무제한 양적완화 및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따르는 수요압력 증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경기 회복세 가속 : 일본은행은 일본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0.7%p의 개선효과를, 일본정부는 1%p의 개선효과를 기대⁵⁾

<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르는 일본 경제성장률 및 물가 변화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10월 전망	2013년 1월 전망	2012년 10월 전망	2013년 1월 전망	2012년 10월 전망	2013년 1월 전망
일본 은행	실질GDP 성장률	1.5%	1.0%	1.6%	2.3%	0.6%	0.8%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0.2%	0.4%	0.4%	2.8%	2.9%
일본 정부	실질GDP 성장률	2.2%	1.0%	-	2.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0.1%	-	0.5%	-	-

자료 : 日本銀行(2013년1월22일), 「物価安定の目標」と「期限を定めない資産買入れ方式」の導入について; 日本 内閣府(2013년1월28일), 平成25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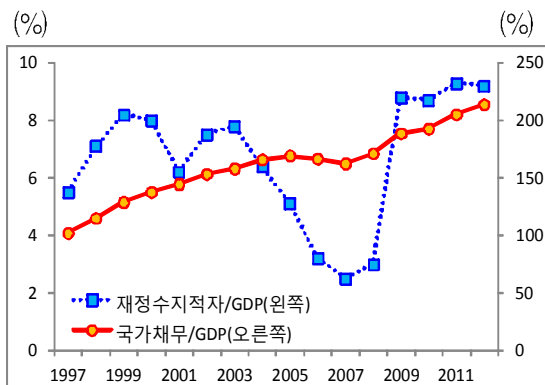
- 주 1.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위원 9명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7명의 중앙값.
2. 일본정부 전망은 내각부의 2012년 1월 24일과 2013년 1월 28일 전망치.

3) 日本 内閣府(2013년1월28일), 平成25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
4) 2013년 엔/달러 환율이 82엔/달러에서 85엔으로 상승할 시 일본의 실질수출은 1.1%, 90엔/달러 시 동 2.3%, 95엔/달러 시 동 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日本総合研究所(2013년1월25일), 2012-2014年度改訂見通し: アベノミクス始動を受けてわが国景気の行方.
5) 일본총합연구소는 201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 1.1%에서 2.1%로, 미즈호총합연구소도 동 상향 조정하는 등 민간전망기관들도 아베노믹스를 긍정 평가. 日本総合研究所(2013년1월25일) 및 みずほ総合研究所(2013년1월25일), 安部政権で何が変わるのかー經濟政策10分野での提案とマインド轉換への10のポイント.

○ (아베노믹스의 3대 딜레마) 장기금리 상승 등 금융·재정 정책의 부작용, 엔저 효과의 시차 발생, 대외 마찰 심화 등의 딜레마 상존으로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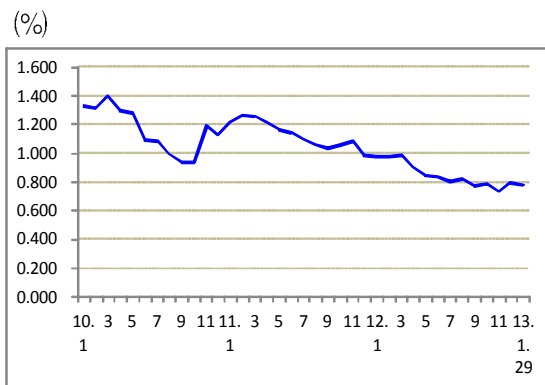
- 확장적 금융·재정 정책의 부작용 우려 :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 기업 투자 심리 악화 등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 :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기준 9.2%, 국가 채무 비중은 214.1%에 이를 전망⁶⁾
- 장기금리 상승 우려 : 일본의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금리)는 2012년 11월 말 0.730%에서 12월 말 0.794, 2013년 1월 29일 0.777%로 출범 이전보다 높은 수준
-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 : 일본의 경우, 장기금리가 1%p 상승(0.8%대에서 1.8%대로 상승)할 경우, 2013년 실질 GDP를 0.5%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⁷⁾

<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 비중 >



자료 : OECD, 日本 財務省.

< 장기금리(국채 10년물) 추이 >



자료 : 日本 財務省.

- 엔저 효과의 시차 발생 :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경상수지 악화 유발, 장기적으로는 J-Curve 효과 지연 유발 우려
-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악화⁸⁾ : 엔/달러 환율 1% 변동 시 수출가격은 0.74% 변화하는데 반해 수입가격은 0.91%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 평균 90엔/달러를 유지할 경우 GDP 대비 0.6%의 무역수지 적자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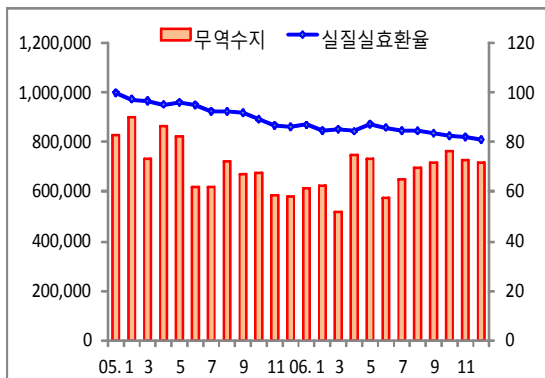
6) 아베정부의 2012년도 추경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7) 大和総研(2012년12월10일), 第175回日本經濟予測(改訂版).

8) 이하, 住友信託銀行(2012년4월)円安で我が国貿易収支は改善するか 및 日本総研(2013년1월9일), 円安影響-景気下押しリスク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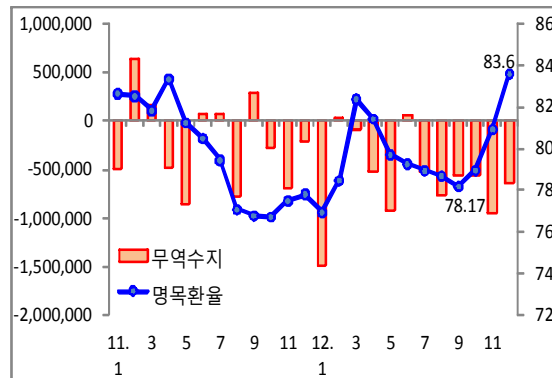
- **J-Curve 효과⁹⁾ 지연** : 일본은 지난 2005년 엔저로 추세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년 이상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2006년 중반부터 추세적인 증가세로 반전. 특히, 2012년 10월부터 엔저로 전환된 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 무역수지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
(백만 엔) (엔/달러)



자료 : 日本 財務省, 한국무역협회.
주 : 무역수지는 5개월 이동평균 값임.

< 명목환율 및 무역수지 추이 >
(백만 엔) (엔/달러)



자료 : 日本 財務省, 日本銀行.
주 : 월평균 값임.

- **대외 마찰 심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 : 엔저 정책으로 인한 통화전쟁 비화 시 통상환경 악화 가능성과 중국과의 분쟁 심화 등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 **통화전쟁 비화 시 통상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 등에 의한 급속한 엔화 절하는 미국 등지와의 통상마찰 원인을 제공
- **중국과의 분쟁 심화로 인한 경기 악화 우려 상존** : 지난 2012년 영토분쟁으로 對中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은 아베정부의 극우성향으로 중국과 분쟁이 심화될 경우, 對中 수출 부진, 중국인 일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실질 GDP의 0.1~0.4% 수준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¹⁰⁾

○ (전망) 2013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 절하 속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물가상승률 2% 달성 및 명목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9) J-Curve 효과란 환율상승(평가절하)으로 인한 경상수지가 개선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현상.

10) 住友信託銀行(2012년4月)円安で我が国貿易収支は改善するか.

- 엔/달러 환율 연평균 80엔/달러 후반 전망 : 연간 엔화 절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수준은 제한적일 것임
- 주요 투자은행들의 엔화 전망을 살펴보면 엔/달러 환율은 연간 지속 상승 전망
- 아베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11월 전망한 엔/달러 환율은 2013년 평균 82.34엔/달러였으나, 아베정부 출범 후인 2013년 1월에는 88.38엔/달러로 약 7.3% 상향 조정
- 단, 이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 수준인 달러 당 90~95엔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주요 투자은행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 >

전망 시점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	9개월 평균	연 평균
2012년 11월	80.54	80.91	81.59	82.34
2013년 1월	87.69	88.27	88.38	87.62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주 1. Barclays Capital, Credit Suisse, JP Morgan, BNP Paribas,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의 13개 은행 전망 평균임.
- 2. 2012년 11월 전망치는 각 기관이 11월 2-26일(BNP Paribas는 9월 20일), 2013년 1월 전망치는 각 기관이 1월 4-28일 사이에 발표한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플러스 전환으로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 소비자물가는 0%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전망
- 201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가 2% 내외 수준 전망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 내외 수준에서 2013년에는 2%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명목 3% 성장에는 못 미칠 것임

< 주요 기관들의 2013년 일본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전망 >

구분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	
			명목	실질
일본정부	0.5%	0.2%	2.7%	2.5%
일본은행	0.4%	-	-	1.6%
일본총합연구소	0.1%	-0.2%	1.9%	2.1%
미즈호총합연구소	-	-0.2%	1.8%	2.0%

자료 : 日本銀行(2013년1월22일), 「物價安定の目標」と「期限を定めない資産買入れ方式」の導入について; 日本 内閣府(2013년1월28일), 平成25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 日本總合研究所(2013년1월25일), 2012-2014年度改訂見通し:アベノミクス始動を受けてわが國景氣の行方; みずほ總合研究所(2013년1월25일), 安部政權で何が變わるのか-經濟政策10分野での提案とマインド轉換への10のポイント.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부진,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수출 부진

- 원/엔 환율이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¹¹⁾
- 따라서,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

- 관광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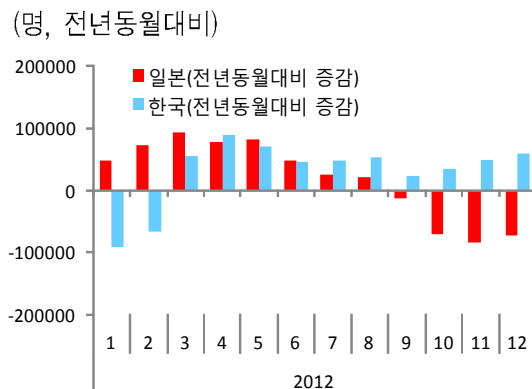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은 지난 2012년 10월 들어 본격 하락, 일본인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
- 2013년 들어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폭인 약 18% 정도 2012년 대비 축소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발생
-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동일한 수준인 약 18% 2012년 대비 증가할 경우 약 3억 달러의 관광지출 증가가 예상
- 전체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이는 2012년 경상수지 432.5억 달러의 약 2.3% 수준임¹²⁾

< 원/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일 양국 간 관광객 수 증감 추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日本 觀光廳.

11) 주원·조규립(2013.3.16), 나홀로 원화 강제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12) 일본인 한국 관광객 평균 지출액은 1인당 1,081달러, 한국인 일본 관광객은 10만 1,600엔. 단, 한국인 일본 관광객 지출액은 일본정부의 2013년 엔/달러 환율 기대치인 87.8엔/달러 적용. 日本 觀光庁(平成24年79月期 報告書), 訪日外国人の消費動向-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結果及び分析; 문화체육관광부(2012. 12), 2011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주요 수출 시장 내 한일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¹³⁾
- 미국 시장 :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IT부문은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미국 시장 내 한일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2.10	2.48	1.31	2.41	2.31	15.98	1.28
	일본	0.58	0.85	1.74	1.22	4.07	1.87	1.81
	격차(한국-일본)	1.52	1.63	-0.43	1.19	-1.76	14.11	-0.53
'11년	한국	2.18	2.79	1.35	1.99	2.65	24.09	0.65
	일본	0.98	1.26	1.83	1.01	3.57	1.63	1.94
	격차(한국-일본)	1.2	1.53	-0.48	0.98	-0.92	22.46	-1.29
'12년	한국	2.17	2.81	1.33	1.43	2.61	36.76	0.63
	일본	0.96	1.21	1.71	1.01	3.38	1.14	1.74
	격차(한국-일본)	1.21	1.60	-0.38	0.42	-0.77	35.62	-1.11

주 : 2012년은 11월까지 값임.

- 중국 시장 :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크며, 조선,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임

13) 이상은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지역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의 결과임. CA지수 = $\frac{(RX_i/RX)}{(RE_i/RE)}$. 단, 여기서 RX_i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i상품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지역의 i상품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수입액임. CA지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

< 중국 시장 내 한일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1.82	1.01	0.91	1.18	1.28	5.55	1.96
	일본	3.21	2.01	1.53	1.02	3.02	0.27	0.79
	격차(한국-일본)	-1.39	-1.00	-0.62	0.16	-1.74	5.28	1.17
'11년	한국	1.98	1.22	1.03	1.27	1.29	0.73	3.01
	일본	3.65	2.27	2.12	1.02	2.54	0.04	1.25
	격차(한국-일본)	-1.67	-1.05	-1.09	0.25	-1.25	0.69	1.76
'12년	한국	2.11	1.18	0.95	1.40	1.04	0.16	3.03
	일본	4.38	2.56	2.06	1.02	2.43	0.08	1.40
	격차(한국-일본)	-2.27	1.38	-1.11	0.38	-1.39	0.08	1.63

주 : 2012년은 11월까지 값임.

- EU 시장 :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부문의 비교열위 상태가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 부문은 양국 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EU 시장 내 한일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1.07	0.52	0.96	2.52	1.41	35.61	4.15
	일본	0.19	0.64	2.20	2.12	2.42	1.01	2.74
	격차(한국-일본)	0.88	-0.12	-1.24	0.4	-1.01	34.6	1.41
'11년	한국	1.20	0.68	1.03	1.60	2.02	53.59	3.18
	일본	0.21	0.85	2.42	1.92	2.21	1.21	3.22
	격차(한국-일본)	0.99	-0.17	-1.39	-0.32	-0.19	52.38	-0.04
'12년	한국	1.20	0.77	1.06	1.66	2.13	44.76	3.63
	일본	0.22	0.89	2.49	2.00	2.34	0.39	3.29
	격차(한국-일본)	0.98	-0.12	-1.43	-0.34	-0.21	44.37	0.34

주 : 2012년은 10월까지 값임.

4. 시사점

-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일본경제는 제한적이거나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추세적인 평가절하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원화 절상 리스크 회피 노력 지속
 -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의 강력한 엔저 전략은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일본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정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제 구축 필요
-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여건 개선
 - 기존 수출 제조업의 R&D 및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한 상품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상품화 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을 촉진
 - 법인세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취
-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이자 산업 부문 간 복합형 산업 관련 부문에서의 국내 파일럿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의 기반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출 산업화로 육성하여, 일본의 관련 부문 글로벌 시장 전략에 대응해야 함
-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 대응
 -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재검토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실천해야 함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02-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위원 (02-2072-6220, chungm@hri.co.kr)

참고 문헌

- 日本 観光廳, '訪日外國人の消費動向—訪日外國人消費動向調査結果及び分析', 平成24年7-9月期 報告書, 2012年.
- 住友信託銀行, '円安で我が國貿易收支は改善するか', 2012年 4月.
- 大和總研, 第175回日本經濟予測(改訂版), 2012年 12月 10日.
- 日本銀行, '「物価安定の目標」と「期限を定めない資産買入れ方式」の導入について', 2013年 1月 22日.
- 日本銀行, '金融政策運營の枠組みの元での「物価安定の目標」について', 2013年 1月 22日.
- 日本總合研究所, '円安影響-景氣下押しリスク', 2013年 1月 9日.
- 日本總合研究所, '2012-2014年度改訂見通し:アベノミクス始動を受けてわが國景氣の行方', 2013年 1月 25日.
- 日本 內閣府,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對策', 2013年 1月 11日.
- 日本 內閣府, '平成25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 2013年 1月 28日.
- みずほ總合研究所, '安部政權で何が変わるのか—經濟政策10分野での提案とマインド轉換への10のポイント', 2013年 1月 25日.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2012년 12월.
- 주원·조규림,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16일.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	-0.2
일본	-0.6	-7.3	-2.8	10.4	0.3	2.0	5.7	-0.1	-3.5	-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25일	1월 3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95	1.99	0.04%p
	엔/달러	77.66	79.37	85.86	90.34	91.10	0.76¥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376	1.3570	0.019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896	13,861	-35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0,927	11,139	21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1	2.76	0.05%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74.5	1,089.0	14.5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46.7	1,961.9	15.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25일	1월 3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5.69	97.45	1.76\$
	Dubai	104.89	92.89	107.99	109.13	110.80	1.67\$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9.31	303.99	4.6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10	175	285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30	5,481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5	-3.0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68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